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지난 7월30일부터 운영 중인 세계희귀동물특별전이 한 여름 불볕더위를 무색하게 할 만큼 많은 방문객이 다녀갔다.

남원 생태교육전시관 '인산인해'

세계희귀동물특별전 1만 8천여명 관람... 사막여우·청금강앵무새 등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지난 7월30일부터 운영 중인 세계희귀동물특별전이 한 여름 불볕더위를 무색하게 할 만큼 많은 방문객이 다녀갔다.

특별전 운영 중 100여개가 넘는 교육시설 및 기관단체 관계자들과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가족방문객 등 1만8천여 명이 넘는 인원이 특별전을 관람하였다.

방문객들은 시원한 실내 전시관에서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살아있는 희귀동물과 희귀곤충표본에 눈을 떼지 못했다. 사막여우, 미어캣, 스킨크, 알비노비비드와 이튼, 청금강앵무새, 등 귀엽고 신기한 동물들과의 특별한 만남이 남녀노소 즐거워했다.

특히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사슴벌레와 장수풍뎠이를 만져볼 수 있는 딱정벌레체험과 물방개, 물벌레, 게야재비, 장구

애비 등 다양한 수서곤충을 관찰할 수 있는 수서곤충체험은 아이들의 생태놀이터 역할을 톡톡히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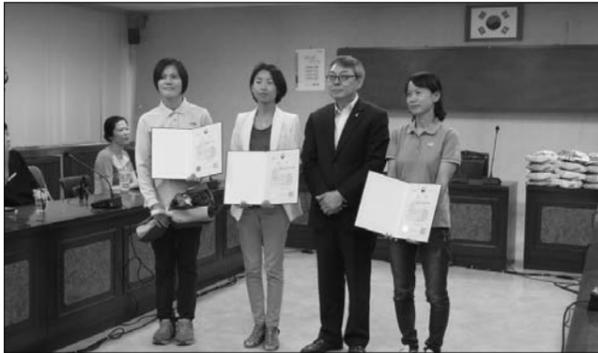
성인 관람객들이 사진촬영을 가장 많이 하는 희귀곤충표본은 실제 곤충으로 만든 작품이 맞는지 눈을 의심하게 만들며 사람 손바닥보다 큰 달라타타가시대벌레, 가장 싸움을 잘하는 키톰장수풍뎠이, 꼬끼리뿔을 먹고 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미누스왕소뿔구리, 새처럼 큰 날개를 가진 버드원나비등은 보는 이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든다. 특별전과 더불어 전시관에서 진행되는 자개거울만들기, 토끼어리만들기, 곤충표본만들기 등은 산림청의 예산지원 받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전시관에는 백두대간의 생태역사문화화를 엿볼 수 있는

상설전시장과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호랑이라이더관, 5D써클영상관이 마련되어있고 타란툴라독거미, 아시안포스트전갈, 대왕노래기가 추가되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세계희귀동물특별전 운영 기간 남원시민 뿐만 아니라 서울, 광주, 부산, 대구, 수원, 전주 등 타 지역에서도 많은 방문자들이 찾아 만큼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이 남원을 대표하는 전시관을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세계희귀동물특별전'은 8월 28일까지 휴관일 없이 운영되며 전시관입장객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람사르고창갯벌센터, 유아교육부분 대상 수상

전국환경해설가 대회서

고창군(군수 박우정) 람사르고창갯벌센터가 '제12회 전국환경교육한마당'의 전국환경해설가대회에서 유아교육부분 대상(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환경교육한마당' 행사는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충남환경교육네트워크, 국가환경교육센터 공동 주최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충남 홍성군에 있는 정운대학교와 홍주성 일원에서 열렸다.

'한국환경교육한마당'은 국내의 환경교육단체, 교사,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물론 중국, 일본, 대만의 환경교육단체가 참가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교육 잔치다.

한국환경교육한마당의 대표 행사인 '환경해설가대회'는 전국의 환경교육센터 및 환경단체의 대표 프로그램들을 발표하고 시연하는 대회로 3개 부문 45개의 팀이 참가해 환경교육전문가 및 교육청 장학사 15명의 공정한 심사로 진행됐다.

람사르고창갯벌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은 단순히 갯벌생태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이 아닌 아이들과 재미있게 활동하고 생태적 감수성을 느끼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고 교구 및 해설기법에서도 아이들과 교감하는 능력이 탁월하여 대회를 찾은 심사위원을 포함한 약 400여명의 환경교육활동가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고창군 심원면에 위치한 람사르고창갯벌센터는 고창군에서 운영 중인 갯벌생태교육기관으로 올해 인시개관을 하여 5월부터 현재까지 학생 체험객과 관광객 등 약 900여명의 생태교육을 받으며 관심을 끌고 있다.

센터에서는 예약을 통해 전시관 안내, 갯벌생태교육, 갯벌댄스, 갯벌게임, 갯벌생물주기만들기, 갯벌현미경관찰, 갯벌공작활동, 갯벌현장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예약은 063-560-2639~40으로 가능하며 홈페이지 <http://gotidalflat.modoo.at>를 통해서도 예약 가능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가축분뇨 배출시설 교육

임실군은 관내 소 사육 150여 농가 대표자 및 관리인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자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2일 임실축산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소 사육시설의 무허가 축사 양성화 처리절차를 비롯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교육했다.

또한, 일정 마다 수 이상 방목할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제대상에 포함돼 시설을 정비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의 지역의 무허가 미신고 축사도 오는 2018년 3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했다.

특히, 가축분 퇴비의 부속도 기준이 마련돼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로 인근 주민과 주변 농경지 등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청결유지, 악취 발생 저감제 상시 사용, 사체의 적정처분 등의 조치를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2018년 3월까지 가능한 모든 축사는 양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불가능한 축사는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임실문화원, 영천서원과 호남학맥 연구 학술대회

임실문화원(원장 최성미)은 오는 25일 '영천서원과 호남학맥 연구' 학술대회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임실군 후원으로 남원부에 속했던 지사면, 오수면, 삼계면 일대가 임실로 편입된 지난 1906년 이후 약 100여년 만에 이뤄지는 역사 조명사업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문중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를 비롯해 김봉근 전남대 교수, 이선아 이재연구소 선임연구원, 안선호 원광대학교 교수,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장의 주제 발표를 비롯해 나중우 전북문화원연합회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실시될 예정이다.

최성미 원장은 "지역 유일한 사액서원으로 높은 문화 가치를 지니고 있는 영천서원이 늦게나마 조명된 것이

다행이다"며, "이해를 넓히고 묻혀진 문화를 찾아 후손들이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영천서원과 남원, 임실, 순창 지역의 호남학맥을 찾아 학문적 계보를 정리하고, 군민의 정서를 찾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1차적 목표"라며, "영천서원을 학문적 화합의 공간이자 정신문화의 토대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천서원은 지난 1619년 함유림(鄕儒林)들의 발의로 건립돼 1686년(숙종 12) 사액됐으며, 1868년 서원철폐령에 따라 해체된 후 지난 1959년에 복원됐다.

자세한 문의는 임실문화원(☎ 642-2211) 또는 군청 문화관광과(☎ 640-2315)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흥영 기자

순창군 전통발효문화사업 수행 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지구 조성 위한 장류산업 도약 기대

순창군이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지구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 기본협약' 및 '전통발효문화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수행협약'을 체결해 장류산업의 일대 도약을 예고했다.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 지구 조성사업은 국내 최초로 산업과 관광이 융합된 한국형 전통단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35만 5,264㎡ 규모로 조성된다.

장류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전체의 산업구조를 바꾸고 농민에서부터 서비산업 종사자까지 주민들에게 큰 경제적 이익을 안겨줄 획기적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발효 테라피센터, 세계발효마을농장, 발효미생물종자원, 전통기법문화원수원, 발효슬로시티과

크 등이 들어선다. 군은 오는 2020년까지 국비 확보와 민간투자 등을 통해 총 6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날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 체결식은 황수주 군수를 비롯한 군측 관계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김경기 본부장, 김승철 지역협력부장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LH는 우선 지구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과 실시설계를 통해 지역개발의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총괄사업관리자로 전통발효문화사업의 계획, 인허가, 보상, 시공 등 개발사업 전반을 수행한다.

순창군은 LH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노하우를 군에 적용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공모델을 구축하고 향후 민

간투지의 성공적 유치를 가능케 할 수 있게 됐다.

황수주 군수는 "순창군 장류산업의 일대 변혁을 가져올 이번 사업을 노후가 풍부한 LH와 추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 발전을 앞당 기겠다"고 말했다.

김경기 LH전북본부장은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세계화 될 수 있는 전통산업문화를 갖고 있는 순창과 LH의 결합이 융합되어 지역산업의 성공적 모델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창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통문화산업 지구를 조기 마무리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흥부제 기본계획보고·행사종목 추진 설명회 열려

축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제24회 흥부제(제전위원장 김진석) 기본계획설명회가 23일 남원시청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진석 제전위원장을 비롯한 흥부제 전위원과 함께 남원시 행사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보고회에서는 흥부제 기본계획 보고와 함께 행사종목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24회 흥부제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3일간) 개최되며 나눔·체험행사, 기념행사, 경연·공연행사, 연계

행사등 총 4개분야 18개종목을 추진한다.

주요행사로 인월면과 이양면에서 터울림과 고유제를 시작으로 요천둔치에서는 남원농악경연, 사랑의 광장과 야외무대에서는 개막식과 흥부리놀부락한마당, 문화나눔장터, 버스킹공연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흥부제는 올해의 무형문화도시 선정을 기념하여 국립무형유산원의 무형유산한마당 행사가 펼쳐지며 남원국제도예캠프와 남원시립어린이합창단의 뮤지컬 흥부, 남원문화원의 고전문화 학술토론회가 연계행

사로 추진되어 여는 흥부제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진석 제전위원장은 흥부고를 터울림에서 연계행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행사에 시민과 문화예술 동아리들의 참여로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흥부제를 주문하였으며 이환주 시장은 흥부제가 나눔의 축제로 변화되고 있다며 아름다운 흥부정신을 축제 속에서 되살리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민회합과 참여를 당부 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접수

9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2016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다음달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시범사업으로 추진예정인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품목별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대상품목은 가을무와 가을배추로 도내 14개 시군이 동일하게 추진된다.

지원범위는 품목당 1,000㎡(300평)에

서 10,000㎡(3,000평)로 지원대상은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계통출하 하는 농가이며 신청 접수시 사업신청서와 함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체결한 출하 계약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오는 9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고창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농산물유통센터 내 고창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원예사업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063-564-8567), 고창군청 마케팅팀(063-560-2695), 각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